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김대희**

<차례>

1. 서론
2.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개관
3. 언어 교육으로서의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 양상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English)을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내에서 매체 언어 교육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매체 언어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학습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거의 절대적인 문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 호주에서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러한 성격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각 주별 교육과정의 설정을 위한 큰 틀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호주 연방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 각 주(state) 교육부는 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6-B00037]

** 호주 Griffith University 방문 연구원

름의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육 방법과 전략을 모색한다. 이러한 자율성과 유동성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¹⁾

영어가 모국어인 호주는 일찍부터 모국어 교육에서 매체 언어에 대한 사회문화적·교육적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해 왔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며, 각 주별 교육과정 수립에 영향을 미쳤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몇 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 호주는 그간의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매체 언어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매체 언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의 하나의 배경이 될 정도로 매체 언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²⁾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속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 양상을 살펴

1) 호주는 7개의 주(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와 1개의 특별 행정 구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으로 나뉜다. 각 지방 행정 정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으며, 각 교과별 교육과정 또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국어와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으로 언어 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와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은 그것이 전달되는 경로인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 소통 주체 간 상호 작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특정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인지 양방향적인지의 차이, 소수의 전문가만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 일반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의 차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담화·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언어 환경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 4).

보는 것은 우리나라 매체 언어 교육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개관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큰 틀은 호주 교육 위원회(Australian Education Council)³⁾에서 제안한 “호주의 영어 교육과정(A statement on English for Australian schools, 1994)”에 근간을 두고 있다.⁴⁾ 이 연구에서도 호주 연방 정부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각 주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⁵⁾

3) 호주 교육 위원회(AEC)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 기구는 현재 호주 연방 정부 교육과정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Curriculum Corporation이라는 조직으로 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995년 이후에 AEC에서 출판된 도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94년 교육과정 수립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Curriculum Corporation은 원래 AEC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교육 프로젝트 수행을 돋기 위해 1990년 설립된 AEC 산하 기구였으나 이후에 AEC는 사라지고 이 기구만 남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연구 내용을 수정하기 전까지 호주 국립 도서관 이외에는 응답이 오지 않아 아래 웹사이트의 정보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추론하였다.(<http://www.mceetya.edu.au/mceetya/default.asp?id=11948> 참고).

4) 호주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영어과 교육과정은 총론(A statement English for Australian schools)과 프로파일(Using the English profile)에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혈설서와 같은 성격의 문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은 서혁(2004)의 ‘호주의 교육과정’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5) 호주 각 주별 자국어 교육과정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www.curriculum.edu.au/ccsite/cc_curriculum_frameworks_and_syllabuses,20029.html#english

이 중 퀸즐랜드 주는 현재 교육과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2009년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될 교육과정안은 연방 정부의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혀 두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의 영어 과목 기본 학습 및

호주 교육 위원회(Australian Education Council)에서 제시한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학습 영역으로서 영어 교육(English as an area of learning)에 대한 개괄적 내용으로,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 문식성(literacy)의 개념, 영국이나 미국과 구별되는 호주 영어의 기준,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학습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영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영역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언어 교육 영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성취 수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성취 수준을 수준 A(Band A)부터 수준 D(Band D)까지 구분하여 학생들이 앞서 두 번째 부분에서 제시한 텍스트와 언어 영역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2.1. 학습 영역으로서 영어 교육(English as an area of learning)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습 영역으로서의 영어는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문식성(literacy) 신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학습 영역으로서 영어 교육 부분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문식성의 개념, 호주 영어의 기준,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호주 연방 정부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 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준은 아래의 웹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논의할 퀸즐랜드 주의 교육과정 또한 이에 바탕을 둔다.

<http://www.qsa.qld.edu.au/assessment/3160.html>

- ① 다양한 문맥에서 목적과 영향력,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읽고, 보고, 쓸 수 있는 능력
- ② 맥락, 목적, 청자(독자), 내용에 따라 언어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 ③ 호주 표준 영어의 언어적 구조와 특질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특히 쓰기에서—수 있는 능력
- ④ 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문학을 현대 사회, 개인의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
- ⑤ 다양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텍스트와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⑥ 텍스트의 해석과 이해가 문화적·사회적·개인적 다양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텍스트의 해석과 의미에 대한 타당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호주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말하기, 듣기, 읽기, 보기, 쓰기라는 언어 사용 기능을 맥락, 목적, 내용 등의 언어 사용 환경 아래에서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문식성은 각기 다른 사회나 문화권에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정의되어지고, 이해되어져 왔다. 오늘날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확장시킨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언어는 의미를 가진 상징 표현의 여러 형태들(문자, 음성, 이미지, 소리, 음악, 영상 등)의 관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문식성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문식성은 더 이상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 의미만을 내포하는 개념이 아닌, 언어를 전제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 상황들에 대처해 내고, 언중들 사이에 공유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술로 그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호주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문식성(literacy)의 개념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식성이란 텍스트로 쓰인 정보를 읽고 사용할 줄 알며, 다양한 상황맥락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읽기와 쓰

기 능력과 더불어 말하고 듣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화자나 필자, 독자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맥락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호주의 영어과 교육에서는 보기(viewing)도 문식성 활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 중 하나이지만,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호주민의 영어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문장이나 통사 수준이 아닌 형태나 음운, 음성론적 관점에서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로 발음이나 어휘에 의해 언어적 독자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 있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발달해 감에 따라 가정에서 쓰던 언어(home language)가 교육에 의해 호주 표준 영어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상의 대화나 공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기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은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며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비공식적으로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며, 어른들은 이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언어를 재정립해 나간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선택된 교사에 의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효과적인 교수란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바탕을 둔다. 영어 학습은 학생들이 가진 언어 지식과 언어 능력을 파악하고, 문화적·언어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언어 능력을 습득하고, 부려 쓰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주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밝히고 있다.

2.2. 텍스트 영역과 언어 교육 영역

호주의 영어과 교육과정 총론의 두 번째 부분인 영역(strands)은 텍스트

에 관련된 내용과 언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된다. 텍스트 영역은 학생들이 배우고, 쓰거나 만들어야 할 텍스트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고, 언어 교육 영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장시켜야 할 언어 사용 기능과 그 지식을 다루고 있다. 텍스트 영역(texts strand)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언어 교육에서 텍스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을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 영역에서 나타내고 있다. 언어 교육 영역은 언어 사용 기술과 지식에 대한 범주를 나타낸 것이다.

호주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텍스트 영역에서는 문자, 음성 및 시각 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언어로 구성된 모든 자료를 텍스트의 범주에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설, 신문 기사, 편지, 대화, 연설, 연극을 비롯한 공연물,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등 언어 학습에서 다룰 수 있는 텍스트는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텍스트의 범주는 문학(literature), 실용문(everyday texts), 매체(mass media)로 구분한다. 문학 범주의 텍스트는 고전 문학 작품, 현대 문학 작품과 잘 알려진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 실용문 범주에는 편지, 각종 양식, 요약문, 에세이, 보고서, 상표, 일기문, 공지문, 전화 대화 등이 속한다. 매체 텍스트에는 인쇄물, 영화, 전자 형태의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 많은 텍스트가 상황에 따라 범주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언어 학습을 위해 선택할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에서는 밝히고 있다. 텍스트의 내용, 텍스트의 복합성, 예상되는 독자 사이의 균형은 모든 텍스트 범주에 해당하는 고려 사항이다. 텍스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원전이 영어로 쓰인 책과 영어로 번역된 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관심과 가치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호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유형을 표현해야 하며, 학생들의 작품도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은 텍스트 원래의 형태 또는 변형된 형태로서 얼마나 많이 사용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같은 텍스트라도 다양한 목적

에 따라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업의 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텍스트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 나감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념적이고 언어적이며 인지적인 복합성을 지녀야 한다.

언어 영역에서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상황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언어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이 알아야 것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또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언어 영역은 크게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락 이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 사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판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이나 주제, 의사소통 수단, 메시지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 등이 자신들의 언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구성하고 이해하며 텍스트에 반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영어의 언어적 구조와 특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상황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언어적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배우지만, 그러한 자연스러운 학습과 더불어 교사는 특정한 언어 구조와 특징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학습 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언어 사용 기술들을 개인의 경험에 맡기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를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할 때 학습은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목적과 주제, 메시지 수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능숙한 화자(필자)일수록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가장 적합한 텍스트 형태, 낱말을 선택하여 알맞은 문법적 구조와 문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사고를 표현한다.

텍스트를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와 특질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말하고, 듣고, 읽고, 보고, 쓰는 동안에 언어 사용에 대한 전략을 신장시키지 못한다면 텍스트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지식은 별 소용이 없게 마련이다.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일상의 대화나 자연스러운 발화, 사적인 메모 등과 같이 비공식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대로 사람들은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언어 활동, 예를 들면, 공적인 글쓰기나 텍스트의 생산 또는 해석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신중하게 표명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의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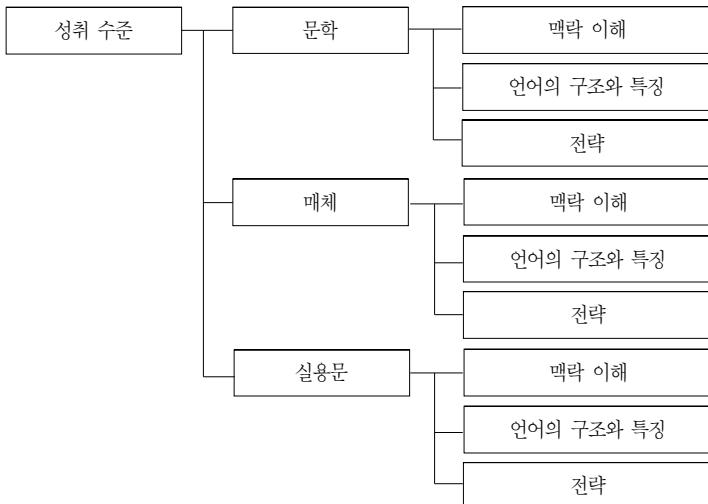
교사들은 학생들이 말하고 듣고, 읽고, 보고, 쓸 때 사용하는 전략과 만들어 내는 의미를 관찰해야 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과정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텍스트에 담긴 생각과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학생들이 사용했던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른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2.3. 성취 수준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A에서부터 D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성취 수준의 구분 기준은 학생들의 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각 성취 수준별 진술은 학교급별 성취 목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성취 수준 A(Band A)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단계의 학생들을 위해 설정되었고, 성취 수준 B(Band B)는 초등학교 학생(1학년~6학년), 성취 수준(Band C)은 7학년~10학년, 성취 수준(Band D)은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⁶⁾

각 성취 수준별로 텍스트 영역과 언어 영역에 따라 학습 내용과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 체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 진술 체계



성취 수준 A에서는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을 소개하고, 우리 주위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가 존재하며,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성취 수준 B에서는 학생들이 말하고, 듣고, 읽고, 보고, 쓰는 텍스트의 범위와 복합 성의 확장에 초점을 두고 가르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취 수준 C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이 구성하고 이해하며 반응하는 텍스트 안에서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킴으로써 성취 수준 D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언어의 비판적인 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좀

6) 호주의 교육 제도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된다. 10학년(우리 나라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학 입학 시험(Higher School Certificate)을 준비하거나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1~6학년, 7~10학년, 11~12학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성취 수준 D에서는 학생들이 이전 학년(성취 수준 A~D)에서 습득했던 언어에 대한 지식과 언어 사용 기술,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고, 학생들이 언어와 텍스트를 해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넓은 시각을 갖추도록 돋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수준의 핵심은 텍스트와 언어에 대한 세밀하고 비판적이며 미적인 분석이다. 학생들은 많은 매체와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의 텍스트를 공부하게 된다.

3.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 양상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언어는 공시성에 초점을 둔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가르치는 언어의 양상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변화에 맞물린 언어 교육의 변화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사회적 변화가 불러온 문식성의 개념의 변화는 New London Group(1996)⁷⁾이 정의한 교육의 방향과도 관련이 깊다.

교육의 사명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공적(公的)인 삶, 커뮤니티 내의 삶,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온전한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문식성 교육(literacy pedagogy)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식성 교육은 한 나라의 공식 표준어로 쓰인 언어를 한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읽고 쓸 줄 아

7)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미국, 영국, 호주의 10명의 학자들이 1994년 9월 미국 New Hampshire의 New London에 모여서 현실적인 문식성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1996년 Harvard Educational Review에 발표하였다. 당시의 그 모임을 New London Group이라 부른다.

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전통적인 문식성 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공식화된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한 단일 언어와 획일적인 문화, 형식적인 언어 규칙 등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교육 기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문식성 교육은 언어 사용에 내재한 중층적 담론에 대한 협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멀티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정현선, 2002 : 387~388에서 재인용).

New London Group⁸⁾이 논의한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은 미국의 NCTE / IRA⁸⁾에서 재정의한 자국어 교육의 목표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B. Drowns 외, 1997 : 6).

현대 사회에서 문식성을 갖는다는 것은 문자·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상업적·정치적 광고, 사진, … 등의 시각적 언어에 대해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문식성 정의의 확장을 기초로, 모국어 교육은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보기,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

호주 역시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텍스트 영역의 구분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텍스트의 갈래를 장르에 따라 문학, 매체, 실용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프로파일에는 텍스트의 형식에 대해서도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로 구분되어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미디어를 통해 소통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로서의 매체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며, 매체 교육을 위한 학습 영역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8) NCTE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영어교사협회(<http://www.ncte.org>)
IRA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국제독서학회(<http://wwwира.org>)

3.1.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 및 내용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교실에서 언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 사용되는 매체는 텔레비전, 비디오, 인쇄물(신문, 잡지, 만화, 포스터),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라디오 등과 같은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대중 매체(mass media)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중 매체의 본질인 공공성에 매체 교육의 성격을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대변하는 것은 대중 매체이며, 이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⁹⁾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대중 매체 텍스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뉴스 기사(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 개인적 의견(신문 사설, 기고문, 라디오의 청취자 응답, 텔레비전 이야 기 쇼와 시사 프로그램, 특집 기사)
- 광고(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다양한 종류의 잡지)
- 드라마(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 다큐멘터리(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 기사(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실리는 범죄, 스포츠, 사회 등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특정 기사)
- 비평(예술, 드라마, 영화, 콘서트, 책에 관련된 비평)

대중 매체 텍스트는 언어 영역에 따라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으로 나뉘어 학교급별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성취 수준(Band) A~D에 제시된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맥락 이해, 언어 구조 및 특징, 전략’으로 구분된 언어 영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매체 텍스트는 경우에 따라 교육적 가치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학습 자료로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① 맥락 이해

학교 교육 입문기의 학생들(Band A)은 매체 텍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매체 텍스트의 목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매체 텍스트를 보고 읽으면서 뉴스 프로그램이나 버라이어티 쇼, 동네 슈퍼마켓의 광고지와 같이 어떤 것들은 실제적인 반면에 만화 프로그램이나 잡지의 이야기처럼 어떤 텍스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초등학교 단계(Band B)에서 학생들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매체에 대한 학습을 통해 더욱 발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광고 텍스트(인쇄 광고, 영상 광고)는 고정관념(stereotype)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학생들은 고정관념이 드러난 광고 텍스트(예: 두 부모와 두 자녀로 대변되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와 그들의 실제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에 묘사된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게 되고, 사회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적, 상황적 맥락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특정 대상에게 호소하는 광고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담은 편집자에게 보낼 편지 등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매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지역 문제에 초점을 두어 뉴스 기사를 모니터한다. 내용이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기사를 쓰는 기자에 의해 강조하는 정보와 사건이 달라지고, 특정 매체의 독자가 표현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쇄물, 라디오, 비디오 제작 및 편집 기술을 동원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7~10학년 단계(Band C)에서는 매체가 현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설

득력 있는 이미지들을 전달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체 텍스트가 매우 중요하다. 매체에 재현된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고정관념과 같은 매체 이미지에 비판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단계에서의 매체 언어 학습은 매체 텍스트는 설득 기제가 매우 강하게 드러남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매체 텍스트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며, 직접 그 기술들을 사용해 텍스트를 구성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성취 수준 C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해 감에 따라 대중 매체의 문화적 맥락이 더욱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학생들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매체 텍스트에 대해 생각하고, 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전략은 텍스트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학생들은 특정한 이미지와 음악, 어휘의 선택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들을 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매체 텍스트가 가진 맥락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각기 다른 두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를 디자인하고, 내용, 관점, 언어의 선택에 따라 광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1~12학년에 해당하는 성취 수준 D(Band D)에서는 학생들은 확장되고, 복잡하고, 가끔은 미묘하기까지 한 매체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등의 사회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사고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를 설득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에 초점을 두고 매체 텍스트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매체 텍스트는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에 대한 학습과 비판적 평가는 학생들을 대중 매체에 대해 더욱 치각 있고 분별 있는 사용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폭넓은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매체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텍스트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뉴스에 담긴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습하며,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많은 매체 텍스트를 서로 비교하고, 특별한 효과를 위해 첨가하거나 생략하거나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사회의 다양한 문젯거리를 다룬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실제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무시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심각하거나 경쾌하게, 자제하거나 직설적으로—이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스스로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시각을 신장 시킨다.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대중 매체, 특히 전자 매체의 몇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방송은 정치인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과 국회에서 정치인이 행동해야 할 방법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나 고정관념이 드러난 광고는 우리의 언어, 가치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중 매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학습은 경제적 맥락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매체의 생산 비용과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광고주나 프로그램 기획자와 같은 몇몇 집단에 의해 방송에서 고정관념이 만연되고 확산되는 이유를 분석하게 된다. 그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환경, 건강, 교통안전 문제와 같은 사회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매체의 맥락성에 대한 이해를 적용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매체 텍스트를 구성할 때 목적과 독자가 중요함을 인식해

야 한다.

② 언어 구조와 특징

성취 수준 A 단계의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매체 텍스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인식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학습한다. 예를 들면, 어떤 매체 텍스트는 그림과 숫자로만 구성된 반면에 또 다른 매체 텍스트는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안다. 학생들은 뉴스와 같이 전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특징을 열거하고, 광고지와 같은 매체 텍스트는 철자 순이나 상품들의 유사성에 따라 목록들을 배열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학생들은 텍스트의 이러한 특징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몇몇 책자들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정보 전달 텍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단계(Band B)에서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다양한 대중 매체의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독자는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사의 목적에 맞게 신문지면의 전체적인 윤곽과 헤드리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의 종류에 따른 언어 구조와 특징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독자,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텍스트의 특징을 찾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와 사건에 초점을 두어 보고서, 기사, 사설, 비평, 영상 또는 인쇄 광고 등을 제작 또는 작성한다.

광고의 기법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말하기와 쓰기의 설득적이고 논쟁적인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들은 감성적인 언어의 사용,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호소,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같은 상품에 대한 인쇄 광고,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학급, 학교, 지역 사회를 위한 광고나 실제 또는 가상 상품에 대한 광고를 만들 때 활용될 수 있다.

성취 수준 C(Band C) 단계에서는 매체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와 특질에

서 설득과 호소의 요소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이 읽고 보는 범위가 더욱 넓어짐에 따라 헤드라인, 기고문, 광고와 같은 텍스트에서 어휘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포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를 분석할 때, 그러한 텍스트에서 눈에 띠는 구조와 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떤 텍스트를 구성할 때, 그 텍스트가 실제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역피라미드 방식('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와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난 후,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실제 텍스트처럼 보이는 신문 기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매체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과 의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에 있다. 대중 매체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은 몇몇 기법들은 논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다른 기법들보다 좀 더 방어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다.

성취 수준 D(Band D)에서는 헤드라인의 집약된 언어가 학생들에게 통사와 어휘 선택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학생들은 특정 어휘, 문구, 이미지가 함축하는 내포적인 의미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언어, 텍스트, 사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끌어오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헤드라인의 선택이 독자를 끌어오고, 신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학생들은 사설, 특종 기사와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텍스트의 구조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 한 편을 녹화해서 각각의 분절과 그 길이를 기록할 표(running sheet)를 작성한 후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다른 언어로 쓰인 같은 정보가 각기 다른 의견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유형과 어조에 대해 분석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매체의 특성상 이것이 일반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체 텍스트는 학생들이 분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과 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③ 전략

초등학교 입문기에는 매체 언어 텍스트를 다루면서 학생들은 실용문이나 문학 텍스트를 읽거나 보면서 사용한 전략들을 끌어들인다. 일반적으로 성취 수준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매체 텍스트에 대해 이해한다.

성취 수준 B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학급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만듦으로써 매체 텍스트의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매체의 생산 과정과 편집자와 기자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알아 간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의미 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텍스트 통합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가르친다. 매체 텍스트의 경우에는 음악과 배경음, 물체, 웃, 대화, 자세, 말투가 형태와 인상을 결정한다. 매체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후 높은 단계의 성취 수준에서 이루어질 매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을 위한 기틀이 된다.

7~10학년 단계에서는 매체 텍스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 전략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같은 사건을 다른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를 비교하거나 신문과 잡지를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은 매체를 제작해 봄으로써 비교 전략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같은 상품에 대해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잡지, 신문에 실릴 광고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성취 수준 D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매체 텍스트를 제작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해 가기 위해 매체 제작 과정을 모의로 이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룹을 구성한 학생들은 편집자가 되어 학교나 학년 잡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 과정에 덧붙여 학생들은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방송한다고 가정하고 기사의 내용과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편집자 회의를 소집하고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다른 종류의 텍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매체 텍스트를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 많은 기술들을 통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특정 의견이나 태도를 견지하는 특정 매체 텍스트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가 지닌 맥락에 대한 이해와 설득 기법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3.2.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학습 영역

호주 연방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의 역할을 하는 ‘Using the English Profile’(1994)에서는 학습 영역을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보기(viewing)’, ‘쓰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구분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각 언어(visual text)에 대한 학습 활동인 ‘보기(viewing)’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그러나 읽기는 문자 언어 처리 과정이며, 보기는 시각 언어 처리 과정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읽기와 보기와 같은 범주에 배치해 놓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기와 읽기를 말하기와 듣기처럼 하나의 범주로 다루는 것은 언어의 처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뉴사우스웨일스의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읽기와 보기는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연결하여 진술한다. 읽기와 보기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호들을 해독하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활동으로 기호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다. 신문, 책,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의 상호관련성 때문에 읽기와 보기 를 한 범주로 처리한다(Board of Studies, 2007 : 8).

결국 호주 연방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보기와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 처리 과정의 유사성 때문이며, ‘보기’라는 언어활동을 명시화한 이유는 시각 언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문자 언어에 대한 처리 과정인 ‘읽기’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렇듯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수용은 영역 구분에서 보듯이 가시적으로는 '보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보기'가 매체 언어 교육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양상을 영역 구분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별 교육과정 영역 구분을 살펴보면, 언어 처리 과정과 영역의 구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인다. 아래 <표 2>는 호주의 각 주별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이다.

<표 2> 호주 각 주별 자국어 교육과정 영역 구분

주	영역 구분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Queensland(QLD)	말하기/듣기, 읽기/보기, 쓰기/제작하기
New South Wales(NSW)	이야기하기(talking) / 듣기, 읽기, 쓰기
Victoria(VIC)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Western Australia(WA)	듣기/말하기, 읽기, 보기, 쓰기
South Australia(SA)	말하기/듣기, 읽기/보기, 쓰기
Northern Territory(NT)	듣기/말하기, 읽기/보기, 쓰기
Tasmania(TAS)	말하기/듣기, 읽기/보기, 쓰기/재현하기

호주의 각 주별 언어 교육 영역의 설정은 크게 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별행정구역(ACT),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와 같이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로 분류한 유형이다. 두 번째는 호주 연방교육부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말하기 / 듣기, 읽기 / 보기, 쓰기'의 구분이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노던테리토리(NT) 주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퀸즐랜드(QLD)와 타즈마니아(TAS) 주와 같이 '말하기 / 듣기, 읽기 / 보기, 쓰기 / 매체 제작'으로 구분한 경우이다.

시각 언어의 이해 활동인 '보기'는 일부 주(ACT, VIC, NSW)에서는 '읽기'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고 '보기' 영역을 설정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어

면 주(WA)에서는 읽기와 분리시켜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교육부 사이에 ‘읽기’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보기’ 활동의 개념과 영역 설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기’ 영역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보기’ 활동에 대응되는 표현 활동이 없다는 것은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방 정부에서 제안한 교육과정에 ‘보기’에 대응되는 표현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일부 주(state)도 있다.

학습 영역을 ‘말하기/듣기, 읽기/보기, 쓰기/매체 제작’으로 구분한 퀸즐랜드(QLD)와 타즈마니아(TAS) 주는 ‘보기’라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이해 활동에 대응되는 표현 활동을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표현 활동을 제작하기(designing) 영역, 타즈마니아 주에서는 재현하기(representing)라는 영역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퀸즐랜드 주의 제작하기 영역과 타즈마니아 주의 재현하기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라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 제안한 학습 영역의 구분은 ‘쓰기’ 개념을 매체 언어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매체 제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각 주별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쓰기’를 “인쇄 매체, 전자 매체, 그리고 공연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구상·계획·조직·편집·출판하는 능동적인 과정”(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2008 : 6)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쓰기’의 개념을 매체 언어로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와 퀸즐랜드, 타즈마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 정부의 교육과정에서 매체 제작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특히 ‘보기’는 있으나 매체 제작은 없는 경우)은 교육과정 영역 체계를 불균형하게 만들었다.

셋째, 교육 내용 면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을 확고히 정립시켰다. 학습 영역의 구분은 각 영역에서 제시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나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보기’, ‘쓰기’와 ‘매체 제작’에 관련해서는 영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보기’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 교육과정은 ‘읽기’가 ‘보기’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체 제작에 관련된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주에서는 ‘쓰기’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결국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수용하는 방법은 각 주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지만, 교육 내용론적으로는 매체 언어 교육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매체 언어에 대한 언어 교육적 접근과 논의는 확고히 정립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매체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시각적 메시지가 생산되고, 시각적 텍스트가 메시지 전달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시각적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요구 때문이다. 1994년 호주 연방 정부의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로 수년에 걸쳐 매체 언어에 대한 사회문화적·언어적·교육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결과로 보인다.

4. 결론

이 연구는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매체 언어 교육은 어떠한 양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호주 연방 정부의 교육과정과 각 주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학습 영역으로서 영어 교육의 성격, 텍스트와 언어 교육 영역, 성취 수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텍스트의 범주는 문학, 실용문, 매체로 구분하고, 각 텍스트에 대해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언어 교육 영역 및 성취 수준을 제시하였다. 성취 수준은 학교급별로 A~D로 나누어 어떤 목표를 두고 교수·학습을 전개시킬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언어 영역 구분과 성취 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다. 매체 텍스트는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의 범주로 나뉘어 학습 목표와 내용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취 수준이 높아질수록 심화되었다.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학습 영역도 주(state)별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보기’, ‘쓰기’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주 정부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매체 언어 교육의 이해 과정을 ‘읽기’ 또는 ‘보기’로, 표현 과정을 ‘쓰기’ 또는 ‘제작하기’ / ‘재현하기’라는 영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가 문서화된 호주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결과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호주 내에서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논쟁, 그리고 실제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이 표현된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사용 참고 자료 등도 언급하지 못했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연구자의 의견이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내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들은 짚은 연구에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좀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내용 중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도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연구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일관성과 체계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별도로 수행하고자 한다.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언어적·문화적 현상이며 작용이다. 학생들이 수용하고 생산해야 할 매체 텍스트의 종류와 양이 광범위하고 방대하지만, 더 나아가 매체 언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고 창의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문제이다.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모국어 교육에서 매체 언어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을 모국어 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은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시적인 접근에서 거시적 이해를 수반해야 하는 교육 과정 전개의 특성상 매체 언어 교육 또한 그 본질과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 10. 31. 투고되었으며, 2008. 11. 3.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김대희(2007), 국어 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김동환 외(2000),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 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연구보고서 2000-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양은(2005),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 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서 혁(2004), 호주의 교육 체제와 자국어 교육과정, <외국어 국어 교육과정>, 나라말.
- 이정춘(2004), 미디어교육론, 집문당.
- 이채연(2001), 「인터넷의 매체언어성과 국어교재화 탐색」, 『국어교육』 제104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학회.
- 정현선(2002), 「성찰적 문화 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4권, 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한국 국어교육학회.
- 정현선 외(2005), 교과 교육과 미디어 교육, 한국언론학회 편(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흘미디어.
- Australian Education Council(1994), A Statement on English for Australian schools, Curriculum Corporation.
- K. Mclean · H. C. Wildash(1994), Using the English profile, Curriculum Corporation.
- B. Drowns(1997), 'Electronic Texts and Literacy for the 21C', 『English Update』 Fall, National Research Center on English Learning and Achievement.
- Board of Studies(2007), English K-6 Modules, Board of Studies NSW.
- Board of Studies(2007), English K-6 Syllabus, Board of Studies NSW.
- D. Buckingham(2000), 정현선 역(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 D. Buckingham(2003), 기선정 · 김아미 역(2004), 미디어 교육(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jnBook.
- K. McLean(1994), Using the English profile, Curriculum Corporation.

M. McLuhan(1964),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김성기 · 이한우 옮김 (1994),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TAS Department of Education(2007), The Tasmanian Curriculum : English-literacy (K-10 syllabus and support materials), TAS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2008), Discipline-based Learning Strand : English,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WA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1998), English Learning Area Statement, WA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http://www.curriculum.edu.au/ccsite/cc_curriculum_frameworks_and_syllabuses,20029.html#english

<http://www.qsa.qld.edu.au/assessment/3160.html>

[http://www.mceetya.edu.au/mceetya/curriculum_corporation_\(cc\),11948.html](http://www.mceetya.edu.au/mceetya/curriculum_corporation_(cc),11948.html)

<초록>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김대희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학습 영역으로서 영어 교육의 성격, 텍스트와 언어 교육 영역, 성취 수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텍스트의 범주는 문학, 실용문, 매체로 구분하고, 각 텍스트에 대해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언어 교육 영역 및 성취 수준을 제시하였다.

매체 텍스트는 맥락 이해, 언어 구조와 특징, 전략의 범주로 나뉘어 학습 목표와 내용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학습 영역 구분도 주(state) 별로 다른 양상을 띠는데, 주로 이해 과정으로서 ‘보기’와 표현 과정으로서의 ‘쓰기’ 영역 설정이 일반적이다.

【핵심어】 매체 언어 교육, 미디어 교육, 호주의 매체 언어 교육, 호주의 자국어 교육, 호주의 교육과정

<Abstract>

A Study on Media Education in Australian Language Curriculum

Kim, Dae-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goals, contents and aspect of media education in Australian English Curriculum.

It is mentioned about English as an area of learning, texts & languages strand, bands in A Statement on English for Australian schools. English is that area of the curriculum where students study and us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xts strand includes literature, mass media are every days texts and language strand involves contextual understanding, linguistic structures and features and strategies. The Bands are divided from A to D.

The areas for media education are different from each state, but generally ‘viewing’ area is set up for understanding of media messages and ‘writing’ area is fixed for production of media texts.

【Key words】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in Australia, Australian language education, Australian curriculum